

# '중도 가르침' 명심해야 합니다

## 풍운 스님의 가르침

사람들은 현대가 과학의 발전으로 생활이 풍족하고, 편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 합니다. 사실 과학이 편리한 것 같아도 사람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잡사는 것이 아니라 파멸을 재촉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해야 하는데 과학을 내세워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좀더 빨리 가겠다고 산 밑으로 굴을 뚫고, 제멋대로 제방을 쌓습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정 발달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상처를 받다가 한계가 넘어서면 지각변동으로 뒤엎히고 하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요즘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재해가 바로 전초현상입니다. 자연훼손을 멈춰야 지각변동을 조금이나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구상에 서식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인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자연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뿐 아니라 우주천지의 덕택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색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의 색입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면 중생의 땀과 피의 색입니다. 중생의 땀과 피를 먹고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은혜를 감으며 살아야 합니다. 말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천으로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남의 피와 땀을 거저먹고, 입고 살아야 쓰겠습니까. 보답을 해야지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를 화두삼아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려워요. '체' 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체' 병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체, 못났으면서 잘난 체,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이 병은 한번 걸리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중도사상입니다. 물질문명과 정신문화, 몸과 마음, 선과 악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병행조절 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과연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우리는 코끼리와 장님 우화를 알고 있습니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정의를 내리는데 코끼리 다리를 만진 장님은 기둥이라고 하고, 배를 만진 이는 벽이라고 하고, 꼬리를 만진 이는 구멍이 같다고 합니다. 코끼리를 만지기는 만졌지만 일부부분만 만진 것입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인간의 성품을 보기는 봤지만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듯 일부부분만 본 것입니다. 선과 악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시에 겸했는데 어느 것이 악이고, 어느 것이 선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악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기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충족시키다가 어떤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 권익을 침해할 때 우리는 악이라 합니다. 선을 넘지 않고 자제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악이라고 전부 없어야 하고 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잘 병행 조절되어야 합니다. 단지 악이 나타나는 현상을 형이하학, 선은 형이상학에 속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병행조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이준영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과학 발전은 파멸 재촉, 지구에 상처 주지 마세요 '내가 잘났다'는 '체' 병 걸리면 실천하기 힘들어



### 한갑 넘어 대학원서 경제학 공부, 수행삼아 배운 무술 '고수'

**풍운 스님은** 192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중학교 입학과 함께 8·15해방을 맞았다.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 사회 혼란해지자 전국의 명산을 찾았다. 그해(17세)에 오대산 월정사로 들어가 5년간 행자생활을 마치고 초대 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았다. 월정사 강원, 동국대 불교학과, 일본 경도제국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스님의 학행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세속 나이로 환갑이 넘어서 한남대 대학원 경제학과를 마쳤다. 스님은 운동에도 남다른 소질이 있다. 젊은 시절 수행삼아 했던 검도, 유도 고수이기도 하다.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83>



### 가을은 廻心의 계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른 가을에 맞이하는 이 기분 좋은 바람을 순수한 우리말로 색바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찬바람머리로 접어들면 오작 소름이 돌아 서둘러 긴소매 옷을 꺼내 입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본격적인 겨울이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연말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토록 무덤덤 여름을 보내고 나면 나도 모르게 여름 농사를 잘 지었는지를 돌아보곤 합니다. 매년 여름을 지날 때마다 그 해 여름이 가장 무더웠던 것만 같은데 특히 올해는 정말 버거웠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벌어졌던 만큼 몸과 마음이 어느 해와 달리 쉽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선들선들 불어오는 색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자니 자꾸만 마음이 늘어집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다니면서 살았으면 딱 좋겠다는 유혹이 자꾸만 일상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마음공부는 쉬어 서는 안 되는데...'하는 망설임도 없지 않지만 마음 가는대로 밭길 닿는 대로 내 몸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궁금합니다. 마음공부, 마음공부...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걸 마음으로 공부하자는 뜻인지, 마음을 공부시키자는 뜻인지, 마음의 공부를 하자는 뜻인지 애매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셋 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중에 정답은 오직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작용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잠시도 머물지 않으며, 번개같이 한 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원숭이가같이 다섯 가지 욕망의 나무에서 노닐며, 화가같이 다섯 가지 행상을 그린다'라는 <심지관경>의 말씀이라든가 '마음은 선의 근원이니 선의 뿌리를 끊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안정되고 해탈한 다음에야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법구비유경>의 말씀을 떠올려보면 '마음공부'란 말은 마음을 공부시킨다는 뜻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가을의 초입에 자꾸만 느껴지는 마음을 다잡으려 하니 마음공부를 표현하는 가장 멋진 말이 생각됩니다 - 회심(廻心)이 그것입니다. 회심은 '마음 돌리기'입니다.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을 반성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회심(廻心)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저지른 악업이 있어도 마음을 돌려 고백해서 앞서의 잘못을 반성해 깨닫고 마음을 집중하여 거듭 참회한다면 비록 악업을 지었다 해도 그 과보를 받지 않는다"라고 <분별선약보응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경에서는 '마음을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굳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본인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워 마음이 굳습니다. 그 굳은 마음이 스스로 풀려져서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바로 참회의 시작이고 참회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음 돌리기는 쪼그라들어서 바늘 하나도 꿰질 여유가 없던 마음을 좀 크게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회심(廻心)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저 혼자만의 행복과 완성을 추구하려던 목표를 수정해서

세상을 향해 아주 크게 인심을 쓰는 일입니다. 인심을 쓴다고 말했지만 사실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해준 세상에 은혜를 갚는 차원입니다. 세상을 향해 크게 마음을 돌리는 이 일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보리심론>에서는 "만약 결정적인 믿음과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겁의 한정을 논할 것이 없이 인연을 만나야만 회심하여 대승의 길로 향하게 되나니(回心向大)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성을 세우셔서 삼계를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웅졸한 마음을 돌려 크게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같은 큰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주 법회에 참석하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과 불교서적이든 부처님께 접해야겠다는 생각을 세심하게 됩니다.

가을은 풍요와 수확의 계절이라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름 농사를 망친 가난한 살림살이에는 참 빨리도 살얼음같은 추위가 찾아들 듯 마음을 잘 길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혹독한 세상살이의 번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올 가을에는 가난한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마음 돌리기(회심)' 수행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 이미명(동국대교원역경위원)

#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 [금물] 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 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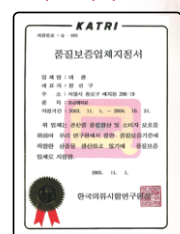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베로 한뼘한뼘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톤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성분)	원단가공품질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안동	경북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안동	중국(산둥)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O마크 획득



###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제백일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윤년중에 한달이 더모인 있는 윤달에는 손계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애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 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 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속이 있다.

그 뜻을 머무어 짐작컨대,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성이 얼마남지 않았던 집안 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만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 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성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